

인터뷰 심은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장

“봉사·나눔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정적 봉사관 운영 매진”



심은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장이 “회원들의 봉사에 대한 열정과 역량, 따뜻한 마음이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국내외 보건의로 중심 맞춤형·통합적 지원 등 경험 갖춰 지난해 4월 취임...취약계층 대상 무료급식소 운영 집중 공연 제안 봉사관에 활기...사회적 고립 예방 목표 설정

“회원들의 봉사에 대한 열정과 역량, 따뜻한 마음이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은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장(44·여)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겨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봉사관’을 만드는 게 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서울 한 무역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보던 그가 이와 동떨어진 ‘사회복지’, ‘봉사활동’이 주업무인 대한적십자사에 근무하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다.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게 평소지론이었던 그에게 2010년 대한적십자사 채용 공고가 들어온 것이다. 그는 이 공모에 참여했고 합격해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헌혈진흥팀 사원으로 입사했다. 그때부터 그는 2012년까지 국민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알리고 헌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독려하고자 헌혈 독려 캠페인, 헌혈 책자 발행 등을 맡아 열성적으로 일했다. 심 관장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혈, 봉사라고 생각한다”며 “헌혈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진짜 열심히 했다”고 당시를 되돌아봤다. 그는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해외 봉사에 눈을 돌렸고 방글라데시를 선택했다. 이곳은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물 오염과 화장실·수도시설 파손, 기반 시설 붕괴로 이어져 수인성 질병 위험이 커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는 그 곳에서 지역사회 요구와 현지 역량에 기초한 보건의로 중심 맞춤형·통합적 지원인 ‘지역사회 기반 재난위험경감사업’을 맡아 재난으로 피해를 본 지역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 도왔다. 한국으로 복귀한 그는 이후에도 3년간 국제 사업을 맡았다고 한다. 2019년 7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중앙봉사관으로 근무지를 옮긴 그는 이때 처음으로 위기가 정,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사업을 하게 됐다. 10여 년간의 근무 경력은 있지만 사실 두려움이 앞섰다. 그동안 겪었던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봉사 현장 최전선인 취약계층, 봉사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봉사회원들과는 함께 빵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진심을 다해 관계를 쌓아갔다. 또 SK텔레콤과 적십자사 간 업무협약으로 출범한 ‘행복 커뮤니티 발벗 봉사단’을 운영하며 독거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도 전력을 다했다. 이후 그는 홍보팀으로 자리를 옮겨 2022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미담 소개, 사업 등을 알리는 데 앞장섰고 지난해 4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장으로 취임했다. 광주에 연고가 없는 심 관장은 따뜻하게 봉사자들을 맞이하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5일 문을 연 적십자 무료급식소

대표적인데 매주 화요일·목요일마다 독거노인 뿐만 아니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세대 200여명을 대상으로 밥, 국, 반찬(5종) 등 균형 잡힌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광주봉사관이 침수되면서 8월 한 달간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재정비를 마친 뒤 9월 다시 문을 열었다. 심 관장은 “고령화 비율이 높은 광주·전남지역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독거 어르신, 취약계층에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이다”며 “식재료 주문, 식단 구성을 하고 50여명의 봉사자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봉사자들에게 식사 대기 공간에서의 공연을 제안했고, 봉사자들은 흔쾌히 받아들여 노래, 장구·트럼펫 연주 등을 하며 봉사관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심 관장은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봉사관에서 정성껏 만든 빵과 음식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봉사자와 나눔의 정신이 지역사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봉사관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 치유농업 ‘품질인증’ 현장 점검 나서 순천 가천산방 방문...우수시설 육성·서비스 연계 확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 품질인증 제도 도입 이후 현장 점검을 나서며 인증시설 중심의 산업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일 순천시 치유농업시설 ‘가천산방’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가천산방은 농촌진흥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우수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을 획득한 곳이다. 이 인증은 치유농업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내 우수 시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설 환경과 인적 자원, 프로그램 운영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9년 1월까지다. 전남에서는 올해 순천을 비롯해 담양, 화순, 해남, 함평, 완도 등 8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는 91개소가 선정됐다. 가천산방은 녹차를 활용한 수제차 체험과 녹차밭 산책을 결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내와 교육장과 편의시설을 갖춰 체험·휴식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유농업 현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점검에서는 치유 자원 활용 실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일 순천시 치유농업시설 ‘가천산방’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이 공유됐다. 김행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품질인증을 통해 전남 치유농업의 경쟁력을 확인했다”며 “더 많은 농장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김인영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 “학술 교류 활성화·국내 의료 수준 향상”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김인영 신경외과 교수(사진)가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제31차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일 밝혔다. 정위기능 신경외과는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비롯해 편측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뇌전증, 파킨슨병 등 기능성 뇌질환을 수술로 치료하는 고난도 분야다. 김 교수는 대한감마나이프방사선수술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관련 분야를 이끌어온 전문가다. 화순전남대병원 뇌종양



전문의료의 핵심 의료인 김교수의 시술 등 정밀 치료를 선도하며, 난치성 뇌질환 치료와 방사선수술 분야에 임상과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김인영 회장은 “정위기능 신경외과는 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학술 교류와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내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글로벌 홍보 강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와 협력 해외관객 유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코엑스 마곡 ‘2026코리아비즈니스엑스포’에서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글로벌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 70여개국 150여개 지회, 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경제단체월드오택타(World-OKT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섬박람회 홍보를 확대하고, 해외 국가·기업의 박람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조직위 김중기 사무총장,

월드오택타 박종범 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월드오택타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국가·기업의 박람회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선 관련 산업&관광·무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사업 기회를 발굴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김중기 섬박람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은 세계 각국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와 연계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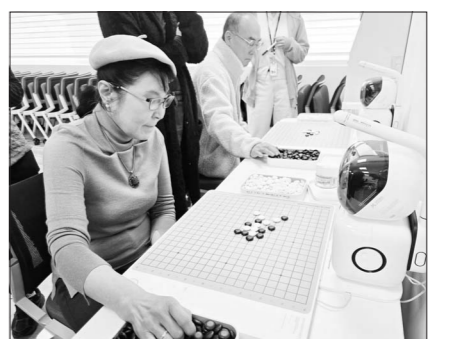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코엑스 마곡 ‘2026코리아비즈니스엑스포’에서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글로벌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해외 기관·단체와 협력을 넓혀 성공적인 섬박람회 개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진 기자 swg3318@

선박에 이동과학버스 싣고 제주로...과학 문화 확대 국립광주과학관, 실버세대 찾아가는 AI교육 ‘성로’

국립광주과학관이 이동과학버스를 선박으로 운송해 제주까지 교육 서비스를 확장했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최근 ‘2026 실버세대 찾아가는 인공지능(AI) 과학관, 우리 동네 왔수다!’ 행사를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제한된 중·장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제주 지역 장년층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AI 활용 추억 사진 영상 제작, AI 로봇과의 오락 대전, 건강관리 AI



로봇 체험, 댄스로봇 공연, 태양 관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일상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더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게시판

결론 ▲니명주(광주일보 편집국장 사진부장)·장미숙의 아들 도호(보성회천중교사)군, 김현준·탁정연의 딸 하경(장흥고교사)양=4일 오후 2시, 더시그너스웨딩피오레홀 ▲서승숙(강진경찰서경비정보안보교장)·김은주의 장남 대훈(한국농어촌공사장흥지사)군, 송기동(전 광주일보 예향국장)·강서화(KT전남전북고객본부)의 장녀 다경(광주광산구청)양=5일 오전 11시, 까사디무체 3층 안젤로 ▲김두환(화순군 산림과장)·윤영경씨 장남 김인호(완도군청)군, 오백만(전 광주공교 교사)·이계순(전 장성군청)씨 차녀 오연주(전남도청)양=11일(토) 오후 4시 광주 서구 상무대로 글로벌리아웨딩홀 1층 라비아홀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올레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자부모집, 한 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운세 (음력 2월 16일)

48년생 가능하면 나들이를 삼가라
60년생 목표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
72년생 주변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운
84년생 감언이설에 속지말라
96년생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51년생 귀하의 처신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63년생 넘치는 것을 버려야 이득이 많아진다
75년생 부동산 거래 자신을 갖고 행동하라
87년생 평소 바라던 일이 이뤄질 것이다
99년생 좋은 일에는 마가 끼니 주의하라
54년생 진행은 되지만 성과가 시원치 않다
66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78년생 임시방편적 이어서는 안 된다
90년생 데이트가 성사될 것이다
57년생 화술이 뛰어나 주변에 사람이 많다
69년생 서두르면 남매 보니 주의하라
81년생 가족으로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된다
93년생 이성에 사기 당할 수 있다

49년생 한 발 앞보하는 미덕을 보여라
61년생 비약하면 우리가 따라다
73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기쁨을 가져온다
85년생 그것은 해결될 것이니 근심 말라
97년생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것이다
52년생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64년생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할 것
76년생 말이 씨가 될 수도 있다
88년생 연인의 일에 상처를 입는 운
55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 다행 일을 얻는다
67년생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79년생 날씨가 확인해봐야 할 때가 됐다
91년생 이익보다는 우정을 먼저 생각하라
58년생 가까운 사람과 교제가 끊길 우려가 있다
70년생 다양한 가능성의 장들이 열리겠다
82년생 지인에게 배신 당할 수 있으니 믿지마라
94년생 여유 있는 자세로 알뜰 데이트하는 날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가족들로 인한 경사가 따르다
62년생 실효적인 재물을 하는 이가 보인다
74년생 업무에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86년생 재물이 생기고 모든 일에도 좋은 운
98년생 금전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3년생 작은 현상이나 대변하게 넘겨라
65년생 주변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리자
77년생 사업을 점검하는 시기다
89년생 명맥만 유지되니 너무 앞서가지 말라
56년생 추진하는 일이 호황을 맞게 될 것이다
68년생 새로운 제안으로 보람 있는 하루
80년생 지속적이지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92년생 인관관계 때문에 힘들어 질 수 있다
59년생 경험으로 국면을 타개하라
71년생 현 상태로 밀고 나가라
83년생 앞으로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다
95년생 집착하지 말라